

[목회자 모임]  
예수 - 만유의 후사

2018. 6. 22. 이현래 목사님

[히브리서 1장]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3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만유의 후사>라고 했다. 후사는 유업을 이를 자다. 하나님을 대신 할 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다. 알고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1:26).”는 이 말씀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말씀이다.

원래 창조 안에서는 사람이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지어졌다. 원래 창조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후사로 지어졌다.

모든 만물을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다. 왜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창세기 2장에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왔는데, 아담이 이름한 바가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은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서 당신의 배필이 되게 해서 자기의 유업을 다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꼭 부부간의 관계처럼 유업을 받을 자로 지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길이 빛나가서 다른 데로 간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가게 되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계시라고 할 수 있다. 아담 계보가 이리하다.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누구를 낳고, 그들이 다 몇 백살을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다.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나이를 살았다. 결국은 오래 살았지만 아들을 낳고 잘먹고 잘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첫 번째 소원이 오래 살고 잘먹고 잘사는 것이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오래 살고 잘먹고 잘살았다. 그런데 도로 흠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5장에 있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아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었다. 용사요 다 유명한 자였더라.

첫째는 오래 살고 자녀 낳고 잘먹고 잘사는 것이 사람의 소원인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또 만족이 없으니까 다음 단계는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네피림이다. 다 유명해지고 싶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이름을 빛내는 것이다. 돈이 얼마 정도 이상 많으면 자기가 다 스스로 쓸 수가 없다. 결국 명예롭게 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예롭게 쓰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도 욕을 얻어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예롭게 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잘먹고 잘사는 시대가 끝나고 명예롭게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다. 땅의 파괴하게 했다고 한다. 강포가 심해졌다. 요즘 같으면 약육강식의 세상이 왔다.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한참 사람을 풀어놓고 보면 1등부터 100등까지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게 되어있다. 자연의 이치다. 약육강식이 생긴다. 이 땅은 평화로운 땅이 되지 못하고 전쟁 통에 들어가는 땅이 된다.

그것을 보고 땅을 파괴하게 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홍수이다. 결국 사람은 잘먹고 잘살다가 거기서 또 한 단계를 넘어가서 장군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거인이 되고 네피림이 되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각성한 사람들은 이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힘을 뭉쳐서 큰 성을 건축하자. 그래서 세운 것이 바벨이다.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와 역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 모여서 흠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성을 높이 견고하게 쌓자. 그리고 망대를 높이 세워서 하늘에 이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빛내자.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역사 그대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큰일을 저지르겠다 싶어서 흠어 버렸다. 서로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11장으로 아담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

높이 될수록 크게 될수록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갈수록 분열이 된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일수록 갈수록 분열이 된다.

이것이 완전히 끝나고 다른 세상이 왔는가? 그렇지 않다. 그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 세계에 살던 사람이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서 불려나온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예수를 가리켜서 신약성경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2:15).”**고 말씀한다. 다 같은 원리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별도의 종자들이 아니고 다 같은 인간인데 다만 거기서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러내는 것을 말한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개선하거나 세상을 좋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바벨에서 불러내듯이 불러내는 것이다. 불러내는 것에 실패하면 아무리 복음 아니라 별 것을 전해도 다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결국은 세상과 섞여지게 되고 문명화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간 데 없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문화시대를 만들게 된다.

지금 유럽이 그런 식이다.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유럽은 문명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전혀 없고 예수 없는 기독교만 남게 되었다. 문명화된 교회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주여, 주여!’하면 되는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예배당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길바닥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다. 정치에 참여하고 세상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는 것이 정치신학이 되기도 한다. 또 신학자들도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다. 한 쪽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자는 주의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람도 결국 이런 길을 밟아가게 된다.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길, 그것이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다.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바벨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불러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전도할 때 불러낸다는 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에 있으면서 문화적인 인간이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면 유럽처럼 되고 만다.

지금 유럽은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너무나 문화가 발달하여 전에 교회에서 하거나 주장하던 모든 일들을 지금은 정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게 되었다.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이다.

옛날에 김\*\*목사의 간증 테이프를 들었는데, 독일에 있는 아카데미를 갔던 모양이다. 강사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고 물으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손을 번쩍 들었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웃었다고 한다. 나오면서 같이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있다고 한 나를 보고 왜 웃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다 목사들이 왔는데, 당신이 참 기이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있다고 믿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목사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좋다는 것이다. 이 사회에 카운슬러가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간증 테이프에서 들었다.

쉽게 말하면 유럽의 형편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하다. 사회복지제도가 완벽하게 되어있는 나라일수록 더욱 그렇다.

우리가 기껏 예수 믿으라고 하고 복음 전한다는 것이 결국은 도로 세상을 만들어놓는 것이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 문명과 히랍 문명이 결합된 것이라고 한다.

신학은 철학과 분리될 수가 없다. 히랍 철학 없이 기독교 신학이 없다. 자기들은 철학은 의문을 던지고, 신학은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 신학이 답변이 되는가? 안 된다. 철학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신학도 들어보면 아무 답이 없다.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았더니 골이 아프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많이 써놓았는데 답이 없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셈이다. 매일 설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옛날에 한 교회에서 8년 간 처음 목회를 했는데, 그때 내가 뭘 말했는지를 모르겠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성경대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뭘 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참 미안하다.

인간적으로는 서로 많이 좋아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4년 동안 뒤를 봐주어서 4년 동안 버틸 수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당장에 떨어져 나갈 자리였다. 지금도 연락을 계속한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미안하다. 뭘 해주었는지 아무것도 없다.

가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나팔을 불어도 제대로 불어야 진군나팔인지 후퇴 나팔인지 알 텐데,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 못하면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보수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문자적으로 돌아간 사람, 교리적으로 돌아간 사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 역시 답답한 일이다. 개혁주의라는 것이 뭔가 했더니 종교개혁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였다. 루터나 칼빈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였다. 50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또 거기서 환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원주의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형식도 초대교회처럼 하자고 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는 식이다. 그것도 답답한 일이다.

초대교회가 2천년전 일인데 또 다시 되풀이 하고 있다. 오죽 갈 데가 없으면 그렇게 되고 있겠는가? 뭔가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기를 그 자리에 있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에 보니까 만유의 후사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빛나가서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사람의 조상이니까 불러냄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된다.

우리 교회 형제들을 보면 불러냄을 받기 전과 불러냄을 받은 후가 하나님의 경륜이 다른 경륜에 속한다. 같은 것이 아니다. 땅은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경륜이 다른 경륜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밖에는 뭘 하신 것이 없다. 교회 안으로 왔다는 말은 새로운 경륜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다. 갈래가 달라졌다.

아브라함의 세계를 보면 아담의 세계와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하여 자식이 없었는데, 언제 자식을 낳았는가? 100살이 되어서야 자식을 얻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자연의 노선이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몇 백살을 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얻었다고 한다.

이것은 다른 세계이다. 왜 이것을 굳이 보여주려고 했던가? 다른 세계라는 뜻이다. 연장이 아니고 다른 세계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삭이 되어야 된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후사라 할 것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전혀 다른 세계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형제를 낳고, 그래서 열두 형제가 소위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다. 진짜 하나님 백성 같았으면 진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했다. 예시에 불과했다. 경륜의 흐름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다. 불러내어서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 야곱은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으로 연단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요셉은 죽을 때 내가 죽거든 내 백성이 여기를 나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다. 출애굽할 때 미이리가 되어있는 요셉의 유골을 매고 나간다.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나간다는 말이다. 자기 뼈가 조상과 함께 묻혀야 되겠다는 것이다. 완전히 애굽을 떠난 것이다. 뼈도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전혀 다른 세계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다른 세계로 흐르고 있다. 땅은 같은데 다른 세계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역사가 투쟁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 민족이 출애굽해서 투쟁하여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역사가 된다. 도저히 투쟁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백성이 봉기를 하여 혁명을 일으켜서 투쟁하여 바로를 물리치고 나올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전혀 다른 길로 애굽 사람이 모르는 길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가지고 방안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매고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다.

피가 발라졌다는 말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겼다. 저주의 신이 모든 애굽 사람의 집을 지나갈 때,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갔다, 패스했다고 하여 Passover 유월절이다. 피 아래서 보호된 백성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된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어떤 셋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에 진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이 행위가 좀 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믿음이 좀 생긴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참으로 답답했던 것이 그것이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인가를 모르겠더라. 거듭나야 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인지를 모르겠더라. 알고 보면 나는 니고데모였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거듭났다는 것도 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거듭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 애매하다.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다 믿음을 조금씩 갖는다. 전혀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겠는가?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믿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은사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거나 무슨 이유로든지 믿음이 생기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듭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되어있다. 모두 문 앞에 서성거리는 모양이 되었다.

거듭남을 아주 강조하여 어떤 교단이 된 곳도 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큰

폭풍을 일으켰다. 디욕(Dick York)이라는 미국 침례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죄사함, 거듭남의 교리를 가르쳤다. 거기서 특출한 사람이 몇 사람 나와서 구원파도 되고 기쁜 소식 선교회도 된 것이다. 8명이 공부를 했는데, 그 중 세 사람이 특출한 사람이 생겼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가? 장로교에서 분명한 뭔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얼마만큼 믿으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가 다 애매했다.

또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당신은 죽으면 천당에 갈 자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은 장로교인이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대답했다. 지금도 물론 거기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 교리적으로라도 배운 것이 없었다.

미국 침례교는 그것을 아예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교육을 받았다. 미국 침례교는 대예배 전에 미리 성경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다. 성경공부를 하는 시간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이다.

한국 장로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뒤집혀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예민했는지 그 사람들에게서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발이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는 모르고 다녔다고 간증을 했다. 얼마나 기뻐하면 그랬겠는가?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했으면 그랬으며, 얼마나 앞이 막막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그때 우리 한국에 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장로교인들이 박살이 날 정도였다.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 않으면 전진하라는 말인지, 후퇴하라는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일을 하게 되고, 종교적인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나간다. 하나님 나라와는 직접 연결이 안 되고, 간접적인 연결 상태가 되고 만다.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다. 왜냐하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에덴동산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동산은 막아져서 끝나고 밖으로 나왔고, 아담은 결국 바벨론으로 갔다.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불러내온 사람들이다.

세상에 살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해결을 못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잘된 사람들은 객지에 나가지 않는다. 고향을 떠나서 이주를 한 사람들은 전부 고향에서 잘 못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초창기 개화기에도 선교사들을 따라서 나간 사람들은 고향에서 잘 안 된 사람들이다. 사대부, 양반집안, 부잣집, 잘된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거기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왔다.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을 만들어놓았는데 학생이 오는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을 사러 갔다고 한다. 시골 가난한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왔다. 그래서 학교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화기 사람들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꼭 그와 같다.

나도 만일 내가 살던 데서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친구 말 한 마디를 듣고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내가 앞뒤가 꼭 막힌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다.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그렇게 들렸겠는가? 내가 노모가 계시고 내가 아니면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나오겠는가?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믿음이 좋아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우르에서 밀리고 밀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잘됐으면 나오라고 해도 나올 리가 없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유대인 사대부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아무도 예수를 따라오지 않았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갈릴리 나사렛의 어부들이 들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훌쩍 반해서 나온 것이다.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나온 것이다.

결코 그 시대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다. 왜? 부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다.

아까 유럽에서는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약간 달라졌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었다. 목사들 사는 것도 어려웠다. 옛날 초기 교역자들은 정말 어렵게 살았다. 밥 먹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었다.

오죽하면 종두리 쌀을 받아먹고 살았다. 지금 사람들은 종두리 쌀이라는 것을 모른다. 밥을 하면서 한 주먹씩 쌀을 모은다. 부뚜막에 그릇을 두고 밥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종지씩을 붓는 것을 모아서 교회에 바쳤다. 그것을 성미(誠米)라고 한다.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못 먹는 전도사도 많았다.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지망생이 많다. 신학생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은 잘하면 괜찮다. 실패도 엄청나게 하지만 그래도 살만 하니까 나온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에서 어찌면 뒤쳐진 사람이 앞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꼴찌로 가던 사람이 뒤로 돌아가라고 하면 일등 하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천국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20:16).”는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다.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5:20).”라고 하는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부르심의 세계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잘먹고 잘사는 것이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거기서는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부름받기가 쉽다. 그렇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부르면 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

쉽고 넉넉하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부름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누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는가?

우리는 지금 **부르심의 세계로 들어왔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적어도 무슨 이유로든지 부르심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부르심의 세계에 들어오면 끝인가? 그것이 아니다. 길은 갈라졌다. 가는 길이 있다.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밟아서 가게 된다. 결코 꼭 쉬운 길이 아니다.

이삭도 모리아 산에 갔다 온 사람이다. 조금만 잘못되었어도 죽을 뻔한 사람이다. 죽었다가 왔다고 봐야 된다. 야곱도 밧단아람에서 20년 동안 자기의 모든 재주를 동원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베냐민인데 베냐민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그때 야곱이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다가 배는 고프고 가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베냐민을 내놓는다. 그때 야곱은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난 사람이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엄청난 머리를 회전시켰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내 아들이 요셉이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단을 쌓았다고 한다.

옛날 같으면 기고만장하여 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여호와께 물었다. 이 사람이 바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130살에 눈이 나빠서 앞은 보이지도 않고, 쌀자루를 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지팡이를 들고 내려간 사람이 바로 앞에 가서 성경을 보면 2번 축복했다는 말이 나온다. 바로를 축복한지라, 바로를 축복한지라.

보통으로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임금을 축복하겠는가? 비록 자기 아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앞은 임금 앞이다. 어디서 거기서 축복한다는 말을 하겠는가?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한 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일일이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고 죽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한 유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읽어보면 어떤 아들은 죽으면서까지 저주를 한다.

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한다. 너의 길은 독사의 길이라고 저주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 가면 단이 없다. 열두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없다. 그 이후로 저 갈릴리 변방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왜?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자고 했다. 유일한 성전을 버리고 자기들이 따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영원히 저주를 받은 족속이 되었다.

어떤 분은 단지파가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단군을 단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단은 계시록에 없다.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빠졌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예언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벌써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다.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만유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회복되었다는 말이다.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말이다.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예수를 보고 이것을 회복시킨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동안에는 모두가 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기대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부르심의 모든 역사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역사이다. 구약은 신약을 기다린다는 말이 이 말이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이 한 사람을 목표로 한 것이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은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본 대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한다. 이것은 ‘이끌었다.’는 말이 된다. 혹은 ‘창조했다.’ ‘달성했다.’는 뜻이다.

예수 없이는 모든 것이 미해결이다. 답이 없다. 인간의 모든 역사나 부르심의 역사 할 것 없이 예수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원래가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갔어도 별 것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뭘 했는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말이 된다. 아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좋은 말은 세상에도 많다. 성경에만 좋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말은 세상이 더 많다. 논어에 맹자에 더 많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람을 감동 시켜도 뭘 해도 모든 세계를 이끄신 이분, 아들, 여기 세계는 세대들이라는 뜻인데 모든 세대들의 열매이다.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이끌어왔다는 하나의 증표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 모세의 세대, 다윗의 세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 아들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나무가 자라면 모든 과정이 마지막 열매에서 결론이 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된다.

오늘날 신학을 보나 교회를 보나 아들이 어디 있는가? 이런 아들이 과연 있는가? 모든 세대의 결론이 되는 아들이 있는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교인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1:3).**”고 말했다. 이것도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사람이 하나님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광채가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의 능력의 말씀(레마)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1:3).”**라고 했다.

‘붙드신다.’는 말은 역시 인도한다, 가져온다, 혹은 결실한다는 뜻이다. 만물이라는 말이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모든 일에 만사에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이다.

예수가 없으면 모든 일에 열매가 없다. 내가 왜 노력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무 이유가 없다. 잘사면 무엇하고 못살면 무엇하는가? 열매가 없는데 뭣 하는가? 이것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이다. 모든 것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히1:3).”**

죄, 죄,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아무리 씻어봐도 안 된다. 이 열매 안에 와서 비로소 모든 죄와 허물이 없어진다. 인생이 걸어왔던 모든 길이 험하게 걸어올 수도 있고, 죄투성으로 걸어올 수도 있다.

마지막에 이 열매가 딱 나오면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걸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걸었는데, 결론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무엇이 남았는가? 이 아들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진다.

내 인생이 험하고 어렵고 고난 투성이라도 아들이 나오면 다 해답이 되어서 감사가 된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나무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의 생김새도 보지 않는다.

대추나무를 보면 잘 생긴 나무가 없다. 정원수로 심기에는 부적절하다. 나무 생긴 것이 모양이 없지만 왜 대추나무를 심는가? 열매 때문에 심는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면 나무 생김새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무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런 소리는 하지 않는다. 열매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무는 잘 생겼는데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된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는 다 하나이다. 이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도달한다. 창조의 목적에 이런 사람이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의 자리가 어디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이라는 말이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있다는 말이 이 말이다.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거기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이런 공로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만유의 후사로서 왔다는 이 말이 서론에 있는 말씀이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천사보다 뛰어남과 구원의 창시자라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천사보다 왜 뛰어난지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이다.

왜 그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되는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었다. 죽었지만 죽음에서 그 열매가 나왔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모르면 역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다. 죽음이 열매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열매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이다. 거기서 참 사람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참 사람 안에 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 사람을 모르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 모든 답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을 모르면 답이 안 된다. 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알려면 그의 죽으심에 가봐야 그를 결정적으로 알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감사합니다.